



서남원 감독 체제로 새롭게 출발하는 IBK기업은행은 2016~2017시즌 이후 5시즌만의 챔피언 결정전 우승을 목표로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서브 리시브와 수비 조직력을 강조하는 서 감독은 기초부터 탄탄한 팀을 만들어 쉽게 무너지지 않는 경기를 하겠다는 포부다. 사진제공 | IBK기업은행 알토스

서남원 새 감독 신뢰 리더십...IBK에 '날개'

베테랑 김수지·김희진 센터 우뚝 리베로 2년차 신연경 수비력 발군 새 외국인 라셈 적응 여부가 관건 서 감독 "서브 리시브·수비 중요"



2011년 창단한 IBK기업은행은 지난 시즌까지 여자부 막내였다. 경기도 화성이 연고지인 IBK기업은행은 단기간에 강팀으로 발돋움한 케이스다. 과감한 투자를 앞세워 챔피언 결정전 우승 3차례, 통합우승 1회 등으로 명문구단의 반열에 올랐다. 위기도 있었다. 2018~2019시즌부터 2시즌 연속 플레이오프(PO) 진출에 실패했다. 특히 2019~2020시즌에는 창단 후 가장 낮은 순위인 5위에 그쳤다. IBK기업은행은 지난 시즌 정규리그 3위로 '봄배구' 무대를 밟았다. 자유계약선수(FA)인 김희진과 김수지를 잔류시켰고, 세터 조송화를 영입하는 등 전력강화에 공을 들인 덕분이다. 러시아 출신 안나 라자레바의 역할도 컸다. 하지만 흥국생명에게 가로막혀 PO에서 탈락했다. IBK기업은행은 4월 서남원 감독(54)을 선임해 2021~2022시즌을 준비 중이다. 목표는 단 하나, 2016~2017시즌 이후 5시즌만의 챔피언 우승이다.

●베테랑 서남원 감독에 대한 기대감

서 감독은 남녀배구를 오가며 V리그에서 잔뼈가 굵은 지도자다. 1990년대 중반부터 삼성화재, GS칼텍스, 대한항공 등에서 코치를 맡았다. 특히 신치용 감독

독을 뒷받침하며 삼성화재의 전성기를 함께 했다. 2013~2014시즌 한국도로공사 지휘봉을 잡고 처음 감독생활을 시작했고, 이듬해 정규리그 정상에 올랐다. 2016년 부임한 KGC인삼공사에서도 능력을 인정받았다. 1년 4개월만의 아인생활을 거쳐 이번에 3번째 여자팀 사령탑이 됐다.

서 감독은 소문난 덕장이다. 또 소통에 능하다. 선수와 소통이 돼야 신뢰가 쌓인다고 믿는다. 배구단 내부규정도 선수와 함께 만든다. 숙소생활, 훈련 등에서 어긋난 행동을 할 때 매기는 벌칙은 선수들의 의견을 전적으로 반영했다. 서 감독은 "때사에 일방적인 것은 없다. 선수들과 얘기를 해서 만든 규칙"이라며 "규칙을 어길 경우 팀워크가 깨지는데, 신뢰가 무너지지 않도록 서로가 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IBK기업은행은 전통적으로 공격적 색깔이 뚜렷한 팀이다. 창단 때부터 그랬다. 레프트 쪽이 조금 약해진 측면이 있지만, 그래도 내세울 것은 공격적이다. 서 감독은 수비 쪽만 보강하면 탄탄한 전력이 될 수 있다고 확신한다. 그는 "선수 개개인의 구성은 좋지만 경기력이 안 좋을 때 쉽게 무너지는 위험도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수비는 기본이다. 팀이 들쭉날쭉 하지 않고 경기력의 편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수비력 보강이 절실하다"고 힘주어 말했다.

서 감독이 특히 강조하는 것은 '서브 리시브'와 '수비 조직력'이다. 그는 "서브 리시브에 중점을 두면서, 매 순간 집

중력을 잃지 않도록 독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화려한 멤버

IBK기업은행의 선수구성은 화려하다. 헤어밴드가 인상적인 김수지와 창단 멤버 김희진이 센터를 맡는다. 이들은 2020도쿄올림픽 4강 진출에도 큰 역할을 맡았던 베테랑들이다. 기량, 경험 모두 정상급이다. 김현정과 최정민이 그 뒤를 받친다. 특히 2020~2021시즌 신인 드래프트에서 전체 3순위로 입단한 최정민은 지난 KOVO컵에서 두각을 드러냈다.

세터는 조송화가 주전이다. V리그 상위권으로 평가받는 세터다. 팀을 안정적인 모습으로 끌고 가는 스타일이다. 국가대표팀 스테파노 라바리니 감독(이탈리아)이 선호하는 빠른 플레이는 아니어서 대표팀에 선발되지 않았지만, 가랑 면에선 결코 뒤지지 않는다.

레프트는 표승주와 김주향이 중심이다. 체력조건, 공격력 모두 수준급이다. 하지만 둘 다 정통 레프트는 아니다. 학창시절 센터를 보다가 포지션을 바꿨다. 그러다보니 서브 리시브가 조금 어설픈 감이 없지 않다. 최수빈, 박민지, 육서영, 양유경 등이 백업이다.

신연경은 이번 시즌이 리베로 2년차다. 2012년 신인드래프트 1라운드 3순위로 IBK기업은행 유니폼을 입은 그의 포지션은 레프트였다. 2014년 흥국생명으로 이적한 뒤 지난 시즌 다시 돌아왔다. 달린 것은 포지션이다. 처음으로

리베로를 맡았다. 기본적으로 수비력이 좋은 그에게는 나쁘지 않은 선택이었다. 서 감독은 "자리를 잡아가는 과정"이라며 "시간이 갈수록 좋아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외국인 라셈에 대한 기대

V리그에선 외국인선수의 활약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성적과 직결된다. IBK기업은행이 이번 트라이아웃에서 선발한 외인은 레베카 라셈(191cm)이다. 미국 출신 라셈은 6순위로 지명을 받았다. 2020~2021시즌에는 이탈리아 2부리그에서 뛰었다. 그는 한국과도 인연이 있는데, 할매니가 한국인이라는 사실이 알려져 화제를 모았다.

지난 시즌 활약한 라자레바보다는 가랑 면에서 뒤진다는 평가다. 라자레바는 지난 시즌 대부분의 공격지표에서 상위권에 들 만큼 출중했다. 라셈이 그 정도로 해줄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라셈은 7월말부터 팀 훈련에 합류했다. 아직까지 손발이 맞지 않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최근 실력이 부쩍 늘었다는 게 서 감독의 평가다. 그는 "처음엔 세터와 호흡이 맞지 않아 타점이 들쭉날쭉했는데, 지금은 안정감을 찾았다. 타임을 잡은 것 같다"며 흐뭇해했다. 아울러 스파이크에 파워가 실리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이다. 라셈에 대한 동료들의 판단도 '물음표'에서 '느낌표'로 바뀌었다. 서 감독은 "아직은 만족할 수준은 아니지만 충분히 성장 가능성이 엿보인다"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윤인 | 최현길 기자 choihg2@donga.com

배구

스포츠동아 2021년 10월 5일 화요일 9



◀ 레베카 라셈

IBK기업은행 2021~2022시즌 예상 스타팅 오더



Li 신연경 김수빈 구혜인

* OPP=라이트, WS=레프트, MB=센터, S=세터, Li=리베로

임업준: 최수빈, 박민지, 육서영, 양유경(이상 레프트)
김현정, 최정민(이상 센터), 김하경, 이진(이상 세터)

●IN&OUT

IN

최수빈(임의탈퇴선수 재영입), 양유경, 구혜인(이상 신인)

OUT

한지현(FA 미계약), 최가은(신생팀 우선지명), 심미옥(계약종료)

최근 6시즌 IBK기업은행 성적

시즌	정규리그 성적(순위)	봄배구 성적	감독
2020~2021	14승16패·승점 42(3)	PO 진출	김우재
2019~2020	13승19패·승점 41(5)	시즌 조기종료	김우재
2018~2019	16승14패·승점 50(4)	진출 실패	이정철
2017~2018	21승9패·승점 61(2)	챔피언 준우승	이정철
2016~2017	18승12패·승점 56(2)	챔피언 우승	이정철
2015~2016	20승10패·승점 59(1)	챔피언 준우승	이정철

편집 | 김대건 기자 bong82@donga.com

화소식 무릎이 불편해서 고생하시는 분~

- ▶며칠 차고있어 보니 무릎이 부드럽고 이렇게 좋을수가!!
- ▶설명이 필요없다 무조건 2,3일만 착용해보면 느낀다!

名作
名品



착용해보니 그것 참 신통하구나!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일상에서 흔히 겪는 일들 중 무릎이 불편하면 의사 의욕이 떨어지고 귀찮아진다.

사람은 일생동안 무릎이 편안하면 콧노래가 절로 나온다. 서 생활하느라 체중이 아래로 집중되어 무릎에 무리가 오게 되는데 특히 비만인 경우엔, 다리를 많이 쓰거나, 나이가 들어 노화현상으로 무릎에 대사가 나빠지면 활동하기가 어려워진다.

건강한 다리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규칙적이고 건강한 식단, 체중조절이 중요하

며 걷기, 스트레칭, 수영 등 다리에 무리가 가지않는 운동을 꾸준히 해주는 것이 좋다.

최근 불편한 무릎을 보호해줄 수 있는 생체(生體)에너지 무릎밴드 참 무르팍엔이 출시되어 무릎이 불편한 많은 분들에게 사랑받고 있는데 천연광물질에서 다량의 파장이 방사 및 방출되는 무르팍엔은 반영구적으로 사용이 가능한 제품이다.

무르팍엔에는 4가지 광물(젤라이트, 그라파이트, 철보석, 의료용 자석)이 침착되어 있으며 그중 그라파이트는 발열소재인 탄소분자를 고온에서 1000배 이상 팽창시킨 물질로 열전도성이 구리의 200배, 빛의 30배에 활동에너지는 300배나 되는 고가의 신소재이다.

어렵고, 힘들고, 불편한 무릎에 착용하여 생활해보시면 시원하고 가벼운 느낌을 느낄 것이며 가볍고 컴팩트하기 때문에 겹옷 속에 차고있으면 표시가 나지않고 활동성이 좋아 누구나 일상생활 중에도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다.

사용해 보면 정말 만족하실 것이고 이곳저곳 소문 많이 내주세요~

불만족시 무조건 반품하세요!!

불편한 무릎을 위하여~
상담문의: 무르팍엔
1670-5467

후대용 허리가 불편해 고생하시는 분~

- ▶허리건강 비밀은 '허리를 따뜻하게 해주는 것'이다
- ▶며칠 착용해보니 그것 참 좋구나!



착용해보시고 확인하세요!

몸이 차가워지면 몸과 마음 그리고 매사의 의욕이 사라지는데 몸이 차가워지면 생기는 현상을 바로잡아 주는데 필요한 것이 찜질 요법이며 찜질요법은 옛 우리 조상으로부터 내려오는 전통요법 중의 하나이며 현대의학에서도 많은 연구와 임상실험을 통해 입증되는 추세이다.

현대인들이 일상에서 흔히 겪는 것들은 우리 몸에 냉기가 쌓이면서부터 발생하는 것

이 많다. 우리 조상들은 몸이 무겁고 기운이 없으면 아궁이에 군불을 지피고 아랫목에서 한숨 쉰 후 자고나면 온몸이 가벼워지는 것을 알았는데 바로 그것이 원적외선 찜질 효과 때문이었던 것이다.

최근 허리를 따뜻하게 해줄 수 있는 허리조아 발열밴드가 출시되어 많은 분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다.



名作
名品

전기 없이 스스로 피부와의 열교환으로 발열되는 허리조아 발열밴드는 반영구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며 4가지 천연광물에서 나오는 파장이 다량 방사 및 방출되는 제품이다.

허리조아 발열밴드는 4가지 광물(젤라이트, 그라파이트, 철보석, 의료자석 등) 중 그라파이트라는 신소재는 천연발열소재인 탄소분자를 고온에서 1000배이상 팽창시킨 물질이며 열전도성이 구리의 200배, 빛보다 30배, 활동에너지는 300배나 되며 허리부위를 전기없이 따뜻하게 유지시켜주는 물질이며 불편한 허리를 따뜻하게 보호하고 배에 힘이 들어가고록 밝혀 줄 것이다.

또한 가볍기 때문에 겹옷속에 차고있으면 표시가 나지않게 착용할 수 있어 누구나 일상생활 중에도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다.

불편한 허리를 보호해주는~
상담문의: 허리조아
1600-1047